

## 기사작성의 문제점

권혁남

전북대 신방과 교수

### I. 머리말

지난 1987년부터 일기 시작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언론계 내부 역시 일대 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문의 경우 CTS의 도입, 증면, 무휴발간제, 조석간제, 전국 동시인쇄 등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이른바 자율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오히려 신문사간의 지나친 경쟁과 일부 사이비 기자들에 의한 폐해가 속출함에 따라 한때 언론공해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면 신문에 있어서 질적 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개념화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질적 성장이란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통한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공신력의 증대를 의미하고자 한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공신력은 무엇을 보도하느냐(보도내용)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도하느냐(기사문체)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작성하는 문제 역시 궁극적으로 언론의 공신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럼 예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언론계와 학계 모두 기사의 작성방식이나 문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학자 박갑수 교수는 「놀랍게도 신문학 분야에 주의를 기울여보면 내용과 제작 기술의 연구에 중점이 놓인 탓인지 형식인 언어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란 독자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고 보면 신문제작자는 신문문장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박갑수, 1990). 사실 과거 우리 언론은 정부, 권력과의 일방적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보도하느냐는 문제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쉬운 기사를 작성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찌면 이러한 문제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사치에 다름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여하간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신문의 기사문장은 일종의 국어교과서이기 때문에 문법과 맞춤법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중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철칙이다. 언론학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분야가 담역성(readability), 우리 말로 「읽기쉬움」의 연구분야이다. [읽기쉬움에 대한 연구목적은 그 말(문자연어)에 의한 의사소통, 이해력, 독해의 어려움 등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읽기쉬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그것을 실제로 측정해서 독자의 수준에 알맞는 신문 기사를 작성하려는데 있다(김기중, 1990: 9).] 여기서 「읽기」란 단순히 글자를 발음하는 능력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는 것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읽기」를 시각적인 기호를 인지하는 면과 그것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이성의

문제는 후자의 측면을, 가독성(legibility) 또는 「읽기 좋음」은 전자 즉 글자나 기호가 읽기 좋게 되어 있는 측면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기중, 1990: 9). 그러나 가독성은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독이성으로 연결될 때에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신문기사 문장의 특이성(읽기쉬움)문세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신문의 기사문장의 어떤 측면 또는 요인들이 독이성을 저해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과 앞으로의 개선방안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 II. 기사문장의 특성과 문제점

신문문장 작성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문체이다. 구조란 개관(outline)의 문제, 사실의 배열순서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문체란 사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될 수 있는가 하는 표현의 태도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구조가 건물이라면 문체는 작법이라 할 수 있다(박갑수, 199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신문문장의 구조보다는 문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흔히들 신문기사문체의 특성을 정확(correct), 명료(clear), 간결(concise)을 의미하는 3C로 특징짓고 있다. 이것은 기사문장이란 무엇보다도 특정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여야 하고 애매하지 않고 명백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혹자들은 기사문장의 특성으로서 이러한 3가지 특성 이외에 객관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기사문장은 어디까지나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나라 신문의 기사문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기사문장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역피라미드형(inverted pyramid form)과 5W1H 형식자체가 일으키는 문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역피라미드형에서 오는 문제점

역피라미드형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개발된 것으로 뉴스의 중요한 핵심이 서두에 요약 제시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보충사실과 흥미 있는 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제목-리드-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리드는 제목을, 본문은 리드를 확인,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사문장이 역피라미드형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쁘게 생활하는 독자들이 전체 기사를 읽지 않더라도 요약만 읽음으로써 기사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흥미나 관심을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다 둘째, 편집상 거두절미를 할 경우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큰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지면에 따라 기사의 길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제성이 크다. 셋째, 편집기자로 하여금 기사에 대한 제목을 다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박유봉 외, 1988 213). 역피라미드 형식은 이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기사작성자 입장에서 보면 기사작성이 쉽지 않으며 중요사실을 앞부분에 모두 집어 넣으려다 보니 기사문장, 특히 리드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현실을 중립적으로 드러내주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사건을 극화시킴으로써 상업주의적 요구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강명구, 1989). 또한 역피라미드식에 의한 편집은 간간이 제목과 본문기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2년 5월 11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오토바이 -열차충돌 /충주, 일가족 셋 사망 10 일 오전 11 시 19 분쯤 충주시 담천동 충북선철도건널목(조치원 기점 81.3km)에서 금만태 씨(40·목수, 충주시 지현동)가 몰던 1 백 25cc 오토바이와 천안기관차 소속 제 2776 호 화물열차(기관사 김종섭, 29)가 충돌했다」 위 기사의 제목에는 일가족 세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있으나 본문 기사내용에는 이러한 사실이 나와 있지 않다. 결국 이러한 경우는 편집자가 리드문에서 제목을 뽑지 않고 기사본문에서 제목을 뽑아낸 잘못된 제목 달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역피라미드형식에 기초한 기사작성과 편집관행에서 파생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2. 육하원칙에 의한 문제점

5W1H는 1890년대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로 인도에서 7년 동안 신문기자로 종사하였던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5W1H를 가리켜 「6명의 충실한 시종꾼」이라고 하였다(최진우, 1983:63). 이야기체 기사형식(Story-Telling)인 육하원칙은 5W1H에 의해 사건을 해부하고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다시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육하원칙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표준화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일찍이 독립신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추광영, 강명구, 1989). 육하원칙은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사작성이 어렵고 독자들에게 획일적이고 진부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문장, 특히 리드문장을 길게 만드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5W1H에 맞추다 보면 사건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전달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극화시킬 우려도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어 오늘날 적지 않은 언론인들은 육하원칙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유물로 몰아세우고 육하원칙에 함몰되어 있는 기사문장을 새로운 형식, 또는 변형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육하원칙은 아직도 여전히 지배적인 기사작성방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5W1H 중 어느 것을 앞에 내세울 것이냐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최진우 교수(1983:52)는 5W1H의 순서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 했다」로 보는 것이 통례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갑수 교수(1990)는 우리 나라 신문들이 기사를 작성 할 때 5W1H 중 어느 것을 앞에 내 세우는지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기사의 첫문장(대부분이 리드)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조사결과 WHO가 가장 앞에 나오는 기사가 전체의 59.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WHAT이 24.1%로 두번째로 많았고, 이어서 WHY(6.5%), WHEN(7.3%), WHERE(3.0%) 순으로 많았으나 이것들은 극소수이었으며 HOW는 한 건도 없었다. 결국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 신문들은 사건의 주체인물(단체, 사물 포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신문의 보도가 인물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 3. 인사문장이 길다

앞에서 지적한 역피라미드형식과 육하원칙에 의한 기사작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외에 우리나라 신문의 기사문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문장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실례로 1992년 6월 2일자 동아일보 22면(7판,

현지인쇄판)에 실린 기사의 경우 최소한 2~3 개 문장으로 처리해야 될 기사를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였다. 「1 일 밤 11 시 20 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274 불광시외버스터미널 앞 6 차선 도로에서 MBC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서 (순돌이 아빠)역을 맡았던 텔런트 임현식 씨(47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가 술에 취해(혈중 알콜 농도 0.25%)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송태순 씨(42, 주부, 서울 은평구 녹번동 42)를 치어 전치 10 주의 중상을 입힌 뒤 길에 정차된 콩코드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위 기사는 무려 200 자가 넘는 기사를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다 보니 우선 독자들이 읽기에 숨이 차고 전체적인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대체로 영어의 경우 한 문장의 단어수가 20 개를 넘으면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한다. 박갑수 교수(1977)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신문기사의 평균길이는 62.3 자, 논문이 50.8 자, 소설은 31.2 자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평균 문장길이는 우리보다 조금씩 긴데, 신문기사가 86.1 자, 논문이 60.5 자, 소설은 34.5 자이다. 박 교수는 90 년에 6 대 중앙지를 상대로 재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드가 평균 65.9 자, 기사문의 평균 길이는 70.5 자로 지난 71 년 조사에 비해 기사문장이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각 면별로 보면 예상대로 사회면이 가장 긴데 리드의 경우 평균 100.7 자로 가장 짧은 스포츠기사 리드의 39.6 자에 비해 2 배 이상 길다. 이와 같이 다른 기사에 비해 사회면 기사가 긴 것은 사회면기사(특히 리드)가 육하원칙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6 대 중앙지의 각 면별 평균 문장길이

	정 치	경 제	사 회	문 화	스 포 츠	평 균
첫 문장	77.0	61.0	100.7	51.2	39.6	65.9
전체문장	80.6	70.0	81.7	63.5	55.9	70.5

대체로 기사문장의 길이가 짧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장이 길 때는 예외없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국어학자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고 있다(박갑수, 1990). 첫째, 문장이 길면 읽기에 숨차고 긴장감을 잃으면서 지루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 둘째로 난해하다는 점인데, 긴 문장이 반드시 난해한 것은 아니지만 난해한 것은 예외없이 길게 마련이다. 셋째로 문장이 길면 앞뒤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 논리성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신문 기사 문장의 길이에 대해 박교수는 한 문장의 길이가 약 50 자 정도가 되어야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의 구성과 표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장을 짧게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사작성자 스스로가 길지 않게 써야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한 문장에서 한 가지사실이나 개념만을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장구조를 단순화시키는 방안인데, 구체적으로 단문 형식을 많이 이용하고 수식어를 줄이는 방법을 들 수 있다(박갑수, 1990)

#### 4. 한자어가 많다

흔히들 우리나라 신문의 기사는 우리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문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자어는 우리 신문기사의 독이성(읽기쉬움)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 돌로 인식되어 왔다. 박갑수 교수(1990)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신문이 사용하는 전체 어휘 중 한자어가 62.6%로 가장 많고, 고유어가 23.1%, 그리고 외래어는 약 6%가 쓰이고 있다. 한자어는 정치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면에 고유어, 외래어(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문화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신문기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자어가 정말로 기사를 읽고 이해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가? 김기중 교수(1990)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신문기사 이해에 가장 어려운 요소로 지목돼 온 한자어 요인은 비록 최대의 난해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하나의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틀림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신문기사 이해를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한자어가 아니라 기사문장의 길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 5. 기타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열거 할 수 있다. 1) 수식어를 일정한 기준없이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행 교수(1990:131)는 특히 정도부사(가장, 아주, 매우, 몹시, 무척, 굉장히, 상당히, 적, 꽤, 제법, 조금, 좀, 약간)와 서술부사(마땅히, 물론, 진실로, 확실히, 정말, 과연, 모름지기, 으레, 응당, 반드시, 꼭, 기필코, 결코, 아무리, 도무지, 왜, 어찌, 혹시, 설마, 아마, 만일, 설령, 가령, 비록) 등은 주관성이 강한 품사이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식어 사용상의 문제는 특히 여론조사보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를 통해 각 신문마다 수식어 또는 수식어구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김민환 외, 1990:37). 「○ 노대통령의 신임평가 안받겠다는 자세에 대해 반대 52.2%, 찬성 38.2%로 당초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동아일보 1989년 6월 30일자). ○ 일왕 한국 방문 찬성이 69.7%인데 '환영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동아일보 1990년 5월 29일자). ○ 민자당의 불화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56.0%)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0년 4월 15일자). ○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해서……복직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96.7%로 지배적이다(조선일보 1990년 5월 26일자).」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배적」이라는 수식어구는 최하 52.2%에서 최고 96.7%까지의 매우 넓은 범위로 사용되고 있다. 2) 우리 신문은 띄어쓰기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띄어쓰기의 목적은 단어와 단어의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자어가 국어의 어휘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독자가 그것들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유어로 풀어 쓰거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이주행, 1990:223). 3) 개정된 한글맞춤법에 따라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가로쓰기에서는 작은따옴표('')를, 세로쓰기 에서는 낫표(「」)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로쓰기 에에서도 낫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이주행, 1990: 225). 4) 주어-

술어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이 긴 문장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데 간혹 주어를 객관화시켜 주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5) 매 문장마다 단락을 바꾸어 지면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 신문들은 「문장=단락」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물론 단락을 자주 바꿔 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문장마다 단락을 바꾸는 것은 지면의 낭비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한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 공간을 띄어쓰기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전투용어나 스포츠용어 등과 같은 선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섬뜩한 용어나 어휘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기사와 스포츠기사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상업주의의식의 연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선거 기사를 분석해 보면 흥미위주의 게임이나 오락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과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몇개만 살펴보면 「불붙은 00 회전」 「열전 20 일 막으론 총선 표밭」 「00 작전, 전략」 등의 표현방식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결단」 「결사항전」 「00 결투, 대결」 등의 섬뜩한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다(권혁남, 1990). 7)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영어식 표현이나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뜨거운 감자」 「찾잔 속의 태풍」 「콜럼부스의 달걀」 「필리버스터」 「레임덕 현상」 등을 들 수가 있다(권오문, 1991). 이러한 외래어는 특히 초중고생들의 신문기사 이해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외래어 요인은 한자어보다도 더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기중, 1990:145).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표현을 개발하고 가능하면 우리의 말이나 글을 많이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신문접근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II. 기사문장 문제점의 원인과 개선 방안

한 나라의 신문은 그 나라의 국어교과서이며 언론인은 국어교사이다. 특히 이미 정규교육의 기회를 잃은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메시지 표현에 가장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품위가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하고, 국문법에 맞으며 알기 쉬운 문장을 작성하여 일관성있게 배열하여야만 한다(이주행, 1990).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의 기사문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이 너무 길다, 어렵다, 모호하다,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국어교과서와 국어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우리 언론이 왜 그러한가? 그 대부분의 원인은 신문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 지면과 시간의 부족이다. 지면의 부족은 압축편집을 요구하는데 과감한 생략을 통한 압축편집이 가장 쉽다. 기사문장이 쓸데없이 길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축소 생략됨으로써 기사작성자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저널리즘의 가장 변함없는 영원한 원칙인 마감시간원칙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양산되고 있다. 기사작성자가 마감시간에 쫓기면 신선하고 새로운 표현이나 문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익숙해 있는 진부한 표현을 다시 쓰게 되며, 작성한 기사가 문법에 맞는지, 맞춤법은 맞는지 틀리는지, 독자들이 기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된다. 둘째, 신문사가 신입기자들의 기사문 작성훈련을 철저히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사는 취재기자-데스크-편집자-교열담당자의 손을 거쳐 인쇄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기사작성법, 문법, 맞춤법 등에 관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대부분의 취재기자들은 기사의 문체보다는 기사의 내용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셋째, 기사작성자들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라 하더라도 의미만 통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사문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넷째, 취재기자들은 여러 계층의 독자보다는 데스크를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기자들은 데스크의 취재스타일이나 기사문체 등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강요 받기 때문에 기사작성시 독자가 아니라 데스크의 취향에 맞추어 문체나 문장의 난이도를 조절하게 된다. 취재기자들이 문법이나 맞춤법을 들리게 기사작성 하였을 때 기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가 직접 고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문사의 데스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취재기자가 철자법이나 구두점, 또는 문법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해 왔을 때 데스크의 15.3%가 담당기자에게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데스크 자신이 직접 고쳐쓴다고 하였고, 50.7%는 기자에게 이를 지적한 뒤 데스크가 고쳐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자에게 지적한 뒤 기자가 직접 고쳐 쓰도록 하는 경우는 34.0%에 지나지 않았다(정민환 외, 1990). 다섯째, 기자들은 새로운 문체를 개발하거나 기사작성법, 문법, 맞춤법 등을 익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언론사마다 스타일북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러한 스타일 북을 보지 않으며 신문의 기사들조차 제대로 정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계가 인정하고 있고,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참고도서실에 비치하고 있는 AP 통신사의 스타일 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활자화된 말의 표현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눈에 보기 좋아야 한다. 그리고 문법상의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영어는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다. 기사문장은 기자 자신이나 담당 데스크를 위한 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독자들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문체는 정확하고 명확, 간결해야 하고, 맞춤법이나 문법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신문과 언론인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신문사와 언론인 모두가 언중들에게 국어교과서요, 국어교사라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신문기사는 어떻게 쓰든 간에 뜻만 통하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독자의 입장에 서서 난이도를 고려하고 문법과 맞춤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둘째, 우리 신문이 채택하고 있는 주기사작성 방식인 역피라미드 형식과 육하원칙을 무조건 준수할 것이 아니라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이나 변형된 스타일을 개발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의 한 부분을 도입으로 시작해서 점점 흥미나 서스펜스를 형성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건의 클라이맥스를 제시하는 연대기적 유형 또는 피라미드형을 사건기사작성에 적용함으로써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신문사는 기자들에게 올바른 기사작성법과 문법, 맞춤법 등에 관한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기자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 경험이 짧은 초년기자의 경우 자신이 익숙해 있는 작은 사건에 관한 기사만 쓰다가 갑자기 대형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자들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기사라 하더라도 여러 신문들을 통해 다양한 사건 기사를 읽어 장차 어떠한 사건을 맡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넷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능한 한 기사를 짧게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사작성자 스스로가 길지 않게 써야겠다는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한 문장에서 한 가지 사실이나 개념만을 쓰도록 하고, 문장구조를 단순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글전용화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음이의어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진부한 표현으로부터 벗어나 표현의 다양화를 위해 이음동의어 어휘에 관한 연구를 언론계와 국어학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표준적인 어휘사용 빈도표를 조사, 작성하여 기사작성에 있어서 일정수의 표준단어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문에 나오는 어휘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표준단어나 어휘사용빈도표를 조사, 작성하여 표준단어 3,000 단어 또는 5,000 단어 등 일정수의 표준단어수 이내에서 기사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 현대의 신문은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독이성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독성 제고를 통해 독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이 존재하는 한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하는 일은 어쩌면 언론의 기본적 의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신문이 이러한 기본적 의무마저도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행태와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1) 강명구, "뉴스의 객관성: 현실의 반영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사상과 정책 (1989, 봄호).
- 2) 권오문, "언론문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문과 방송(1991, 11 월호), pp. 48~57.
- 3) 권혁남, "신문의 지방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언론연구원, 지방자치와 언론(1990), pp. 165~230.
- 4) 김기중, "우리 글의 '맞기 쉬움' 요인에 관한 연구-언론문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1990).
- 5) 김민환 외, "조사보도와 정정" 한국언론연구원, 오보와 정정(1990).
- 6) 박갑수, 문체론의 이론과 실제(세운문화사. 1977).
- 7) "신문기사의 문체와 표현".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기사의 문체 (1990), PP. 5~158.
- 8) 박유봉 외, 신문학 이론 (박영사, 1988).
- 9) 이주행, "기사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기사의 문체 (1990), pp. 159~298.
- 10) 최진우, 신문보도기사를 (과학정보사, 1983).
- 11) 추광영, 강명구, "구한말 한국신문에 있어 뉴스의 성격 ", 신문학보(1989).

고려대 신방과, 동 대학원 (박사)

저술: 「한국인의 정치인지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외

현재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